

집중호우 대응·현안사업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주재 읍·면장 회의 개최... 산사태 대응관리·현장점검 철저 등 당부

최훈식 장수군수는 19일 회의실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당면 현안사업 논의를 위해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 군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7~8월 집중호우대비 산사태 대응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피해조사 △2023년 FTA 피해보전작업 신청 등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부지공모 및 주민 인센티브 지원 △2023년 7월 재산세 '주택·건축물' 납부 홍보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상황 주민 안내 △장수 콤팩트 페스티벌 홍보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운영 △국도9호선 장수 노다지구 위함도로 개선사업 추진 협조 △천천전도 110호(춘용산) 도로개설공사 추진 협조 △2023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읍·면 협조를 요청하며 홍보 사항 전달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주말부터 다시 시작



최훈식 장수군수는 19일 회의실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당면 현안사업 논의를 위해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에 철저히 해줄 것이라며, 장수군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호우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기상특보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을 위해 비상상황 대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19일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기존 입점 농가와 입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반딧불 사이버장터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개편

만족도 높은 온라인 쇼핑물 환경 조성 위해 시스템 개선키로

무주군이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인터넷 쇼핑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판매자에게는 소득증대 효과를 안긴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반응형 웹기술도 적용 (PC와 모바일 등 모든 화면 사이즈에 대응 가능)할 예정이다. 또 간편 결제와 모바일 페이 등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개선해 순발력 있게 고객을 응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들어간 무주군은 19일에는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기존 입점 농가와 입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 농민

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가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가 무주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는 무주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에 유통과정을 간소화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무주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매출액은 총 5억 6천여만 원으로 2021년도 보다 44%(2억여 원)가 상승했다. 무주군은 반딧불 사이버 장터 입점 농가에 택배비와 홍보 등을 지원해 소득증대를 돕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필리핀 퀴리노주 주지사, 진안 방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지역으로 근로자 격려·협력 도모

진안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지역인 필리핀 퀴리노주에서 디길라 카를로 주지사와 메이디 쿠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 11명이 18~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2월 필리핀 퀴리노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의한 이행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진안군 관계자들은 디길라 카를로 주지사 일행과 함께 환영식을 갖고, 인사말을 통해 "퀴리노주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협약으로 진안군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퀴리노주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정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디길라 카를로 퀴리노주지사는 "진안군에서 먼저 업무 협약을 제시하시면서 본국의 주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됨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양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지역인 필리핀 퀴리노주에서 디길라 카를로 주지사와 메이디 쿠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 11명이 18~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군을 방문했다.

한편 진안군에는 필리핀 퀴리노주 출신 98명을 비롯해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마갈레스시 등지에서 온 외국인계절근로자 337명이 영농 현장에 배치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섬진강권역 관광콘텐츠 개발용역 중간보고회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이 위치한 진안군이 섬진강을 따라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권역 관광콘텐츠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섬진강권역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을 시점으로 마령면~성수면을



파라 산재 되어있는 관광·역사·마을자원을 연계하고 브랜드화하여 진

안군민의 차별화된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되는 용역이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진안고원 섬진강의 시작 천성담'을 미래(전)으로 수립하고, 3개 추진 전략·12개 관광콘텐츠 사업을 소개하는 등 사업 타당성과 연계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펼쳤다.

진안군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내용과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를 전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초당옥수수·미니단호박 '한정수량 완판'

진안고원을 실시간 방송판매 진행 결과

진안고원물이 지난 14일 진행된 진안고원 초당옥수수·미니단호박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결과 한정수량 완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안고원물은 당일 14시부터 1시간여 동안 네이버쇼핑라이브의 진안고원물 채널을 통해 진안군 정전면 달착지근 농가(오선희)의 진안고원 초당옥수수와 성수면 사기점골 미니단호박(이민영)을 각각 100박스와 200박스 한정으로 판매했다. 준비한 물량은 다음날까지 완판됐으며, 진안고원물 총

주문량이 500건을 육박하는 판매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실시간 방송 판매는 진안고원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품목이 전년도에도 소비자 리뷰 및 만족도에서 손에 꼽히는 상품으로 당도와 식감, 저장성과 신선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소비자 리뷰가 이어졌으며, 출하 시기 도래에 따라 상품구매 문의와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요청 쇄도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번 방송은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7월 초 중순에만 구매할 수

있는 제철 농산물이라는 점이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금요 정보나 쿠폰 이벤트 할인 등으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진안고원물 담당팀장이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농가와 함께 다양한 조리방법을 공유하고 맛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초당옥수수는 이유식과 수프, 옥수수치즈를 만들어 달콤한 초당옥수수의 풍미를 전달했다. 다음 순서로 판매한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고려해 이유식과 수프 조리방법 및 초당옥수수를 결들인 단호박 반죽 등 다양한 조리방법을 소개하며 진행해 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5분 발언

“저탄소 농업실현 매뉴얼 시행을”

동창옥 진안군의원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축산분야 자원 순환 등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 실천 접근법 제안



특히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100% 인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사회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나 선거구)은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6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동창옥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한파, 폭우 등 대형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195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위한 목표를 발표하고 농축산업의 경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농축산업 농가들이 조속히 적응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탄소 농업실현을 위한 매뉴얼 시행,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축산분야의 자원 순환, 사육관리 및 농촌진흥청과 대두단백에 대한 협의 등을 제안했다.

“교통소외지역 이동 편의 대책 마련을”

손동규 진안군의원

“지역 쇠퇴 원인 작용”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은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 편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진안군이 인구감소 소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이러한 교통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시군정질문을 통해 진안읍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편의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동권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안읍 지역의 군산리나 군하리를 제외한 소제지 지역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대책으로 “순환택시의 외연 확장과 행복커버스를 진안읍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총력 당부

장수군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상 영향으로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리가 드라난 곳은 흙으로 메워주고 부러진 가지는 최소면적으로 자른 후 보호재를 바르는 등 과원 정비를 실시하고 탄저병, 갈색무늬병(갈반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또한 벼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조열병, 잎집무늬마름병과 흑립나방, 이화명나방 등이 일부 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친 후 적온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침수된 논은 신속히 물을 완전히 빼고 새 물로 갈라대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추나 깨, 배추 등 노지작물은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침수된 곳은 깨끗한 물로 흙양분을 씻어내도록 하며 비가 그친 후 역병과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주기적으로 주의 관찰하고 배수로 정비 및 비닐하우스 밀폐를 통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수박축제 취소

진안군은 오는 29일~30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13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6회 동향면민의 날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한다.

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피해복구와 향후 추가적인 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진안고원 수박축제추진위원회 및 면 이장단과의 긴급회의를 갖고 축제 전면 취소와 면민의 날 행사 간소화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29일 제26회 동향면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면민의 날 수여식 등만 진행한다.

전춘성 군수는 “지하차도 침수 등 수해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의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무주군이 19일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무주에 체문화관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구조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무주 관내 10층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주체), 주민,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와 무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다.

훈련은 사고사태 위주로 구성된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을 시작으로, 승객이 정점으로 승강기에 갇힌 상황을 가상해 승강기 내 비상등 점등, △비상 정지, △비상 발전기 가동, △비상 전원 투입, △구조요청 및 신고,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출동·구조, △피해상태 확인 및 현장 복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19구조대원의 현장 출동 후, 긴급 구조 단계별 대처가 실전처럼 이뤄져 현장감을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